

채권 월간수급

9월은 상환, 10월은 진짜 수요

Bond Brief

[채권] 김명실 2122-9206 msbond@imfnsec.com

Check Point

9월 수급 악화는 대규모 만기상환의 영향이 컸음. 주요기관의 거래일당 순매수는 8월보다 늘었지만, 상환 반영 보유증감은 +7.93조원에서 -2.59조원으로 전환

외국인 국고채 보유감소 -5.40조원 중 상환이 5.10조원. 이를 외국인의 적극적인 매도로만 해석해서는 안될 것
10월에는 9월과 같은 국고채 만기상환 부담이 없어 기존 보유감소가 반복될 지보다, 상환 효과가 걷힌 뒤 외국인의 신규 국고채 순매수가 회복되는지가 핵심

외국인 매수의 만기도 확인해야 함. 9월에는 1~5년 매수가 늘어난 반면 10년 이상은 순매도. 10월 매수가 중단기에 머물면 장기물 수급 개선 효과는 제한적

국내 기관의 매수 지속성은 아직 확인이 필요. 9월 누적으로 은행의 5~10년, 보험·기금의 20년 초과 매수가 강했지만 두 기관 모두 월 후반에는 국고채를 순매도

10월은 발행 물량을 누가 소화하는지가 중요하며 국고채 발행계획과 입찰 결과를 외국인·은행·보험기금의 만기별 순매수와 대조해야 할 필요

9월 기관 수급: 매수 속도는 빨라졌지만 보유는 줄어든 모습

9월 기관별 채권 수급은 매수 속도는 빨라졌지만 보유는 줄어든 모습이다. 23일 기준 주요 기관의 누적 순매수는 33.96조원으로 8월 월간 36.72조원 대비 소폭 줄었으나(추석 연휴 및 28~30일 data 미반영), 거래일당 순매수로 보면 2.00조원으로 8월 전체의 1.84조원을 상회했다. 그러나 상환을 반영한 보유증감 기준으로는 8월 +7.93조원에서 9월 -2.59조원으로 전환됐다. 총매수 규모만 보면 수요가 유지됐지만, 실제 보유 확대까지 이어지지는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수급 악화의 중심에는 외국인과 만기상환이 있다. 외국인은 전체 채권을 2.16조원 순매도했고 상환도 6.70조원에 달해 보유가 8.86조원 감소했다. 다만 국고채는 0.29조원 순매도로 만기자금이 충분히 재투자되지 않은 영향이 컸다. 자산운용 역시 10.36조원을 순매수했지만 상환을 차감하면 보유가 2.39조원 줄었다. 외국인의 공백은 은행과 보험·기금이 상당 부분 흡수했다. 은행 보유는 5.08조원, 보험·기금은 3.51조원 증가했다. 다만 국고채 매수는 은행의 5~10년물 1.05조원, 보험·기금의 20년 초과 3.12조원 등 특정 구간에 집중됐다. 같은 20년 초과에서 외국인은 0.96조원을 순매도해 초장기 수급의 주체별 차이도 뚜렷했다.

표1. 9월 수급: 매수 속도는 빨라졌지만 보유는 줄어든 모습

핵심지표	8월 전체	9월 MTD	변화(9월-8월)
5개 기관 순매수	36.72	33.96	(2.76)
거래일당 순매수	1.84	2.00	0.16
상환 반영 보유증감	7.93	(2.59)	(10.52)
외국인 국고채 순매수	0.74	(0.29)	(1.03)

보험·기금 20년 초과 국고채	1.96	3.12	1.16
국고 3/10년 스프레드(bp)	47.00	37.50	(9.50)

자료: iM증권 리서치본부

주: 9월 data는 23일까지 기준. 단위는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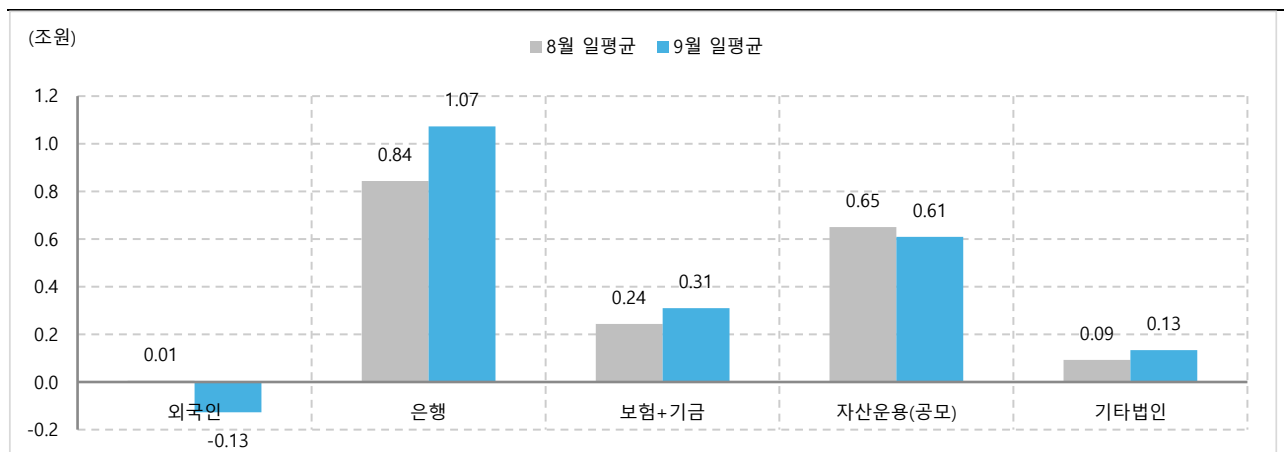
표2. 주요 기관별 특징: 은행·보험의 매수에도 외국인과 운용사의 국고채 보유 감소를 상쇄하지 못함

기관	전체 채권 순매수	전체 채권 보유증감	국고채 순매수	국고채 보유증감	코멘트
외국인	-2.16	-8.86	-0.29	-5.40	국고채 순매도 자체보다 9월 10일 국고채 만기상환에 따른 보유 감소가 큼
은행	18.23	5.08	3.18	1.26	전체 채권 매수를 주도했고, 국고채도 상황분 이상 매수
보험·기금	5.27	3.51	2.79	1.63	국고채 보유 확대 지속. 20년 초과 매수가 두드러짐
자산운용(공모)	10.36	-2.39	0.34	-2.02	순매수는 플러스지만 상황액이 더 커 국고채 보유 감소
기타법인	2.27	0.06	-0.03	-0.17	전체 보유는 거의 정체, 국고채 보유는 소폭 감소
5개 기관 합계	33.96	-2.59	5.98	-4.70	은행·보험의 매수에도 외국인과 운용사의 국고채 보유 감소를 상쇄하지 못함

자료: iM증권 리서치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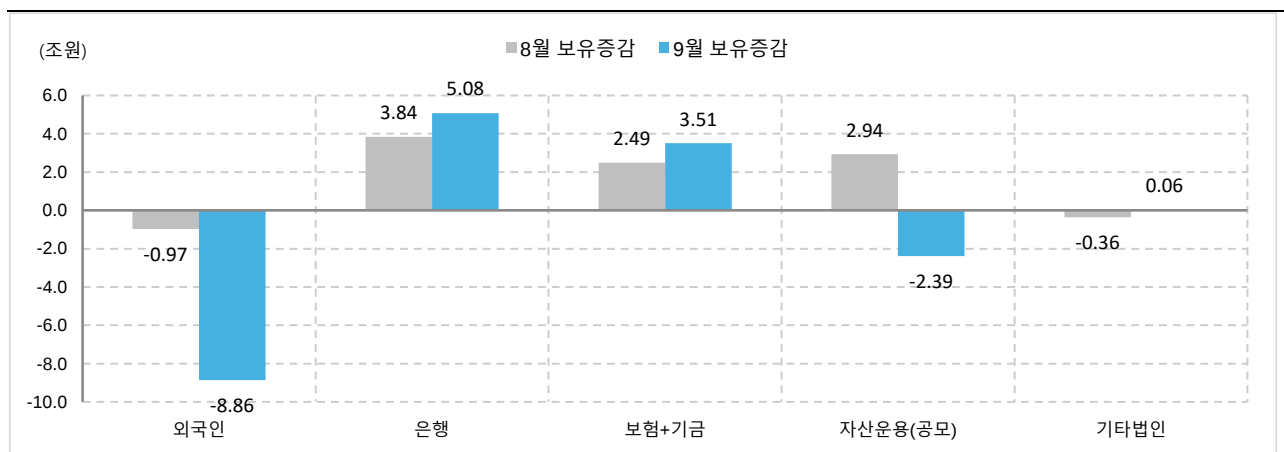
주: 9월 data는 23일까지 기준. 단위는 조원

그림1. 기관별 순매수 및 보유 증감: 거래일당 순매수는 1.84조원에서 2.00조원으로 늘었지만, 외국인과 자산운용의 보유는 감소



자료: 연합인포맥스,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2. 상환 차감 후 보유 증감(순투자): 5개 기관 보유증감은 8월 +7.93조원에서 9월 -2.59조원으로 전환



자료: 연합인포맥스, iM증권 리서치본부

8월과 9월의 패턴 비교: 은행의 증기물·보험의 초장기물 매수에도 외국인 만기상환과 운용사 보유 감소가 더 크게 작용

8월에는 국내 기관의 매수가 외국인 수요 둔화를 흡수하며 5개 기관의 보유가 늘었다. 전체 채권 순매수는 36.72조원, 만기상환을 차감한 보유증감은 +7.93조원이었다. 외국인 보유가 0.97조원 감소했지만 은행(+3.84조원), 보험·기금(+2.49조원), 자산운용(+2.94조원)이 이를 상쇄했다. 외국인의 공백이 나타나기 시작했어도 국내 기관의 매수가 실제 보유 확대로 이어진 달이었다.

9월에도(1~23일 누적기준) 매수 속도 자체는 약해지지 않았다. 5개 기관의 거래일당 순매수는 8월 1.84조원에서 9월 2.00조원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9월 순매수 33.96조원에 상환 36.55조원이 겹치면서 보유증감은 -2.59조원으로 돌아섰다. 8월과 9월의 차이는 신규 매수의 유무보다 만기자금의 얼마나 재투자됐는가에 있다. 특히 외국인은 전체 채권을 2.16조원 순매도했고 6.70조원이 상환되면서 보유감소 폭이 8월 -0.97조원에서 9월 -8.86조원으로 확대됐다. 국고채에서도 같은 변화가 나타난다. 외국인은 8월 국고채를 0.74조원 순매수했으나 9월에는 0.29조원 순매도로 전환했다. 여기에 국고채 상환 5.10조원을 반영하면 9월 국고채 보유증감은 -5.40조원이다. 은행은 국고채를 3.18조원 순매수해 상환 후에도 보유를 1.26조원 늘렸고, 보험·기금도 각각 2.79조원과 1.63조원을 기록했다. 반면 자산운용은 국고채를 0.34조원 순매수하고도 보유가 2.02조원 감소했다. 단 은행·보험의 매수만으로 외국인과 운용사의 상환 공백을 모두 메우기는 어려웠다.

만기별로도 국내 기관의 매수는 선택적이었다. 9월 은행은 국고채 5~10년물을 1.05조원 순매수했고, 보험·기금은 20년 초과를 3.12조원 매수했다. 같은 초장기 구간에서 외국인은 0.96조원을 순매도했다. 8월이 국내 기관의 폭넓은 흡수로 전체 보유가 증가한 달이었다면, 9월은 은행의 증기물·보험의 초장기물 매수에도 외국인 만기상환과 운용사 보유 감소가 더 크게 작용한 달이라고 볼 수 있다.

표3. 8월 vs. 9월: 은행의 증기물·보험의 초장기물 매수에도 외국인 만기상환과 운용사 보유 감소가 더 크게 작용

기관	8월 일평균	9월 일평균	8월 보유증감	9월 보유증감
외국인	0.01	(0.13)	(0.97)	(8.86)
은행	0.84	1.07	3.84	5.08
보험·기금	0.24	0.31	2.49	3.51
자산운용	0.65	0.61	2.94	(2.39)
기타법인	0.09	0.13	(0.36)	0.06

자료: IM 증권 리서치본부

주 1: 거래일당 순매수는 해당 기간의 순매수 총액을 실제 거래일 수로 나눈 값. 7월은 한 달 전체이고 8월은 24일까지 집계 기준이므로, 단순 총액을 비교하면 8월 수급이 과도하게 작아보이기 때문에 기간 차이를 보정한 매수 속도 또는 강도를 의미

주 2: 단위는 조원

외국인 WGBI 관련 수급 추정: 8월은 장기물 매수, 9월은 만기 상환과 매수 축소

8월 외국인의 국고채 매수는 단기물을 줄이고 5년 이상을 늘리는 방향이었다. 1년 미만은 3.04조원 순매도했지만, 5~10년 1.73조원, 10~20년 1.40조원, 20년 초과 0.73조원을 순매수했다. 5년 이상 순매수가 합계 3.87조원에 이르면서 단기 매도를 상쇄했고, 국고채 전체 순매수도 +0.74조원을 기록했다. 외국인 수요가 커브의 중장기 구간을 폭넓게 지지한 달이었다. 9월에는 단기물 매도가 이어졌지만 규모는 1.68조원으로 줄었다. 대신 1~2년 +0.63조원, 2~3년 +0.17조원, 3~5년 +0.75조원 등 1~5년 구간이 합계 1.55조원 순매수로 돌아섰다. 8월의 1~5년 순매수 -0.09조원과 비교하면 매수 중심이 뚜렷하게 짧아졌다고 판단할 수 있으나 9월 외국인 수급을 전 만기의 일률적인 이탈로 보기 어려운 이유다.

한편 국고 5~10년 구간은 두 달 모두 외국인의 순매수를 유지된 구간이다. 다만 규모는 8월 1.73조원에서 9월 0.96조원으로 줄었다. 9월은 아직 17거래일 집계이지만 거래일당으로 환산해도 약 0.09조원에서 0.06조원으로 매수 속도가 낮아졌다. 즉 5~10년 수요가 사라진 것은 아니나, 8월처럼 장기 매수의 중심 역할을 하지는 못했다. 변화가 가장 큰 곳은 10년 이상이다. 8월에는 10~20년과 20년 초과를 합쳐 2.14조원 순매수했으나, 9월에는 두 구간 모두 순매도로 전환돼 합계 1.12조원을 팔았다. 특히 20년 초과는 +0.73조원에서 -0.96조원으로 방향이 바뀌었다. 그 결과 5년 이상 전체 순매수도 8월 +3.87조원에서 9월 -0.16조원으로 약화됐다. 9월 외국인 수급의 특징은 단기 매도 지속보다 장기 듀레이션 수요의 후퇴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월중 흐름 역시 8월과 반대의 흐름을 보였다. 8월 외국인의 국고채 순매수는 전반부 -1.60조원에서 후반부 +2.33조원으로 회복됐다. 9월에는 1~15일 +0.71조원이었지만 16~23일 -1.00조원으로 돌아섰다. 다만 9월 후반부는 6거래일만 포함돼 있으므로 이를 월말까지 이어질 흐름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워 추가 데이터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종합하면 8월의 외국인은 단기물을 매도하면서 5년 이상을 폭넓게 매수한 점이 특징적이었다면, 9월에는 1~5년 매수를 늘리는 대신 10년 이상을 줄였다는 점이 포인트다. 잔존 1년 이상 국고채 순매수는 8월 +3.78조원에서 9월 +1.38조원으로 낮아졌으며, 9월 10일 국고채 만기상환 5.10조원까지 겹쳐 보유증감은 -5.40조원을 기록했다. 물론 9월 말 만기자금의 재투자과 장기물 매수 재개 여부에 대한 추가 확인은 필요하다. 또한 9월 국고채 보유감소 5.40조원은 대부분 만기상환에 따른 것으로, 이를 WGBI 자금의 순유출로 해석하기는 어렵지만 10년 이상 순매도가 나타난 만큼 WGBI 관련 수요가 장기금리까지 지지할 것이라는 기대는 낮춰야 할 필요가 있다.

표4. 외국인의 만기별 매수는 어떻게 달라졌나: 8월에는 1년 미만을 3.04조원 순매도하면서 5년 이상을 합계 3.87조원 순매수. 9월에는 1년 이상 매수는 계속됐지만 규모가 줄었고, 매수 중심은 장기에서 중단기로 이동

거래 당시 잔존만기	8월 전체 순매수	9월 23일 현재 순매수
1년 미만	-3.04조원	-1.68조원
1~5년	-0.09조원	+1.55조원
5~10년	+1.73조원	+0.96조원
10~20년	+1.40조원	-0.16조원
20년 초과	+0.73조원	-0.96조원

자료: IM 증권 리서치본부

은행과 보험/기금의 패턴: 은행은 5~10년, 보험·기금은 20년 초과 매수를 확대했으나 두 기관 모두 9월 후반에는 순매도

우선 은행은 8월에는 3~5년 +0.76조원, 5~10년 +0.85조원, 20년 초과 +0.77조원 등 중기와 초장기를 비교적 고르게 매수했다. 9월에는 3~5년 매수가 +0.28조원으로 줄어든 대신 2~3년이 -0.34조원에서 +0.70조원으로 돌아섰다. 5~10년은 +1.05조원으로 확대돼 은행 수요의 중심 구간을 유지했다. 단기 쪽에서는 2~3년, 중장기 쪽에서는 5~10년으로 매수가 나뉜 모습이다. 은행의 20년 초과 순매수도 0.77조원에서 1.15조원으로 증가했다. 반면 10~20년 매수는 0.38조원에서 0.10조원으로 감소했다. 따라서 은행이 장기물 전반의 듀레이션을 고르게 늘렸다고보다 5~10년과 20년 초과에서 선별적으로 매수를 확대한 것에 가깝다. 전체 채권 보유증감 역시 8월 +3.84조원에서 9월 +5.08조원으로 늘어, 은행은 외국인의 보유감소를 흡수한 가장 큰 국내 기관이었다. 다만 은행의 월중 매수는 후반으로 갈수록 약해졌다. 8월에는 전반부 국고채 순매수 +0.18조원에서 후반부 +2.19조원으로 가속됐지만, 9월에는 1~15일 +3.93조원을 매수한 뒤 16~23일에는 -0.75조원 순매도했다. 9월 누적 순매수가 8월보다 크다는 사실만으로 은행의 최근 매수 강도까지 강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워 월말 거래에서 5~10년과 초장기 매수가 다시 유입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보험·기금은 만기 선택이 더욱 뚜렷했다. 20년 초과 국고채 순매수는 8월 1.96조원에서 9월 3.12조원으로 늘어, 9월 국고채 전체 순매수 2.79조원을 웃돌았다. 다른 만기에서의 순매도가 초장기 매수 일부를 상쇄했다는 뜻이다. 5~10년 매수도 0.61조원에서 1.23조원으로 확대됐지만, 수급을 결정한 구간은 여전히 20년 초과였다. 보험·기금의 1~2년 순매도는 8월 -0.51조원에서 9월 -1.73조원으로 커졌다. 10~20년 역시 두 달 연속 순매도였다. 결과적으로 9월 패턴은 단기·일부 장기 구간을 줄이면서 5~10년과 20년 초과를 늘리는 형태다. 이를 만기별 포지션 재배분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거래자료만으로 동일 자금이 단기물 매도 후 초장기물 매수에 투입됐는지까지 확인할 수는 없다. 보험·기금도 은행과 마찬가지로 9월 초·중반에 매수가 집중됐다. 1~15일 국고채 순매수는 +3.76조원이었으나 16~23일에는 -0.98조원이었다. 10월 수급에서는 보험·기금의 20년 초과 매수가 이어지는지, 은행의 월 후반 매수 공백이 회복되는지를 함께 봐야 할 필요가 있다.

결국 두 기관을 합치면 9월 20년 초과 국고채를 4.28조원 순매수해 외국인의 같은 구간 순매도 0.96조원을 흡수했다. 이는 초장기물의 국내 수요 기반을 보여준다. 다만 국내 기관의 매수가 특정 만기에 집중되고 두 기관 모두 9월 후반에는 순매도로 돌아섰다는 점에서, 초장기 금리의 안정성을 누적 순매수만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은행의 5~10년 매수 지속 여부와 보험·기금의 20년 초과 재매수 여부가 다음 달 커브 수급을 가를 핵심으로 판단된다.

표5. 은행과 보험/기금의 국고채 매수 변화: 은행은 5~10년, 보험·기금은 20년 초과 매수를 확대했으나 두 기관 모두 9월 후반에는 순매도

국고채 잔존만기별 순매수	은행 8월	은행 9월	보험·기금 8월	보험·기금 9월
1년 미만	-0.10	0.19	0.47	-0.06
1~2년	0.05	-0.29	-0.51	-1.73
2~3년	-0.34	0.7	-0.09	0
3~5년	0.76	0.28	0.14	0.37
5~10년	0.85	1.05	0.61	1.23
10~20년	0.38	0.1	-0.24	-0.15
20년 초과	0.77	1.15	1.96	3.12
국고채 전체	2.37	3.18	2.34	2.79

자료: iM증권 리서치본부

주: 9월은 23일까지 기준. 단위는 조원

총평: 향후 외국인 매수가 10년 이상으로 확산되고 은행의 5~10년, 보험·기금의 초장기 매수가 지속되면 수급 부담은 완화

9월 23일 현재 5개 기관의 거래일당 전체 채권 순매수는 2.00조원으로 8월의 1.84조원보다 빨랐다. 그러나 만기상환을 차감한 보유증감은 8월 +7.93조원에서 9월 -2.59조원으로 전환됐다. 매수 수요가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상환된 자금을 보유 확대로 연결할 만큼 충분히 재투자하지 못한 것이 9월 수급의 핵심이다. 10월에는 상환 부담이 작아 보유증감이 계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상환 효과를 제외한 신규 순매수가 얼마나 유입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우선 외국인이 가장 중요한 변수다. 9월 외국인의 전체 채권 보유는 8.86조원, 국고채 보유는 5.40조원 감소했다. 국고채 순매도는 0.29조원에 그쳐 국고채 보유감소의 대부분은 5.10조원의 만기상환에서 발생했다. 따라서 9월 대규모 상환 이후 10월에는 외국인의 신규 국고채 매수가 재개되는지가 중요하며 매수 만기 역시 체크 포인트다. 8월에는 5년 이상을 폭넓게 매수했지만 9월에는 1~5년 매수가 늘고 10년 이상은 순매도로 돌아섰다. 외국인 매수가 재개되더라도 중단기에 머무는지, 10년 이상으로 확산되는지에 따라 장기금리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내 기관은 외국인의 공백을 상당 부분 흡수했으나, 9월 누적 수치와 월 후반 흐름이 엇갈린다. 은행은 국고채를 3.18조원 순매수하며 2~3년, 5~10년, 20년 초과에서 매수를 늘렸고, 보험·기금은 20년 초과를 3.12조원 순매수했다. 반면 두 기관 모두 9월 16~23일에는 국고채 순매도로 전환됐다. 후반부가 6거래일이라는 한계는 있지만, 10월에도 은행의 5~10년 매수와 보험·기금의 초장기 매수가 이어질 것이라고 누적 실적만으로 가정하기는 어렵다. 자산운용은 매수액보다 상환 부담을 함께 봐야 한다. 9월 전체 채권을 10.36조원 순매수하고 국고채도 0.34조원 순매수했으나, 상환 이후 보유는 각각 2.39조원, 2.02조원 감소했다. 기타법인은 전체 채권 보유증감이 +0.06조원으로 거의 정체됐다. 10월에는 운용사의 만기자금이 국고채 매수로 재유입되는지, 아니면 단기 유동성 확보에 머무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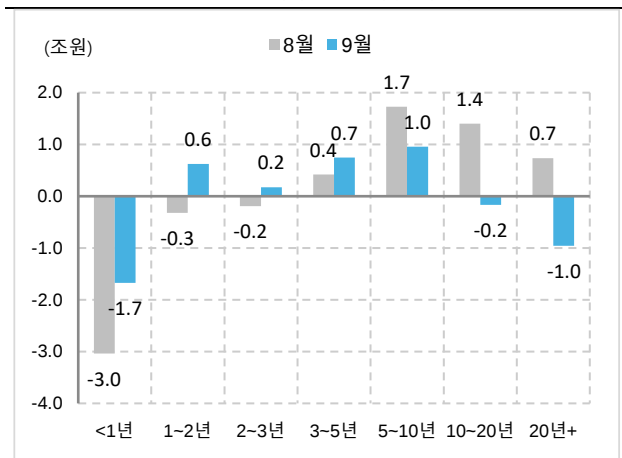
종합하면 10월 수급의 핵심은 외국인의 신규 국고채 매수가 재개되는지, 그리고 은행과 보험·기금의 매수가 이어지는지다. 10월에는 9월과 같은 대규모 국고채 만기상환이 없는 만큼, 보유증감의 반등 자체보다 신규 발행 물량을 누가 어느 만기에서 흡수하는지가 중요하다. 외국인 매수가 10년 이상으로 확산되고 은행의 5~10년, 보험·기금의 초장기 매수가 지속되면 수급 부담은 완화될 수 있다. 반대로 외국인 수요가 중단기에 머물고 국내 기관의 매수 둔화가 이어진다면, 전체 순매수가 늘더라도 장기물 수급 개선으로 연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표6. 10월 수급은 외국인의 재투자, 은행과 보험/기금 매수의 지속성, 그리고 매수가 어떤 만기로 향하는지가 중요. 외국인 보유가 회복되고 국내 기관의 매수가 5~10년과 초장기에 이어지면 수급 부담은 완화될 수 있음

기관	9월 수급 특징	10월 확인할 지표	판단 포인트
외국인	국고채 보유 -5.40조원. 만기상환 영향이 큼; 10년 이상 순매도	국고채 만기자금 재투자, 10년 이상 순매수 회복	순매수 재개가 중단기에 그치면 장기물 지지력은 제한적
은행	국고채 +3.18조원. 5~10년 +1.05조원; 월 후반 순매도	5~10년·20년 초과 매수 재개	국내 수급의 중심 역할이 유지되는지 확인
보험·기금	20년 초과 +3.12조원, 1~2년 -1.73조원	20년 초과 매수 지속성, 입찰 전후 흐름	누적 매수보다 초장기 반복 매수 여부가 중요
자산운용(공모)	국고채 순매수 +0.34조원에도 보유 -2.02조원	상환자금 재투자, 단기물과 중기물 매수 비중	보유감소가 일시적 상환 효과에 그칠지 판단
기타법인	전체 채권 보유 +0.06조원, 국고채 보유 -0.17조원	국고채 순매수 전환 여부	현재로서는 방향을 주도할 수급 규모가 아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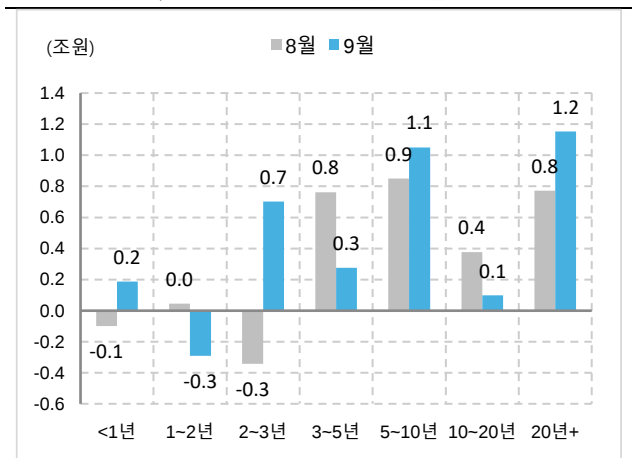
자료: IM 증권 리서치본부

그림1. 외국인 만기별 국고채 순매수: 8월 +0.74조원에서 9월 -0.29조원으로 전환되며 10년 이상 매도가 두드러졌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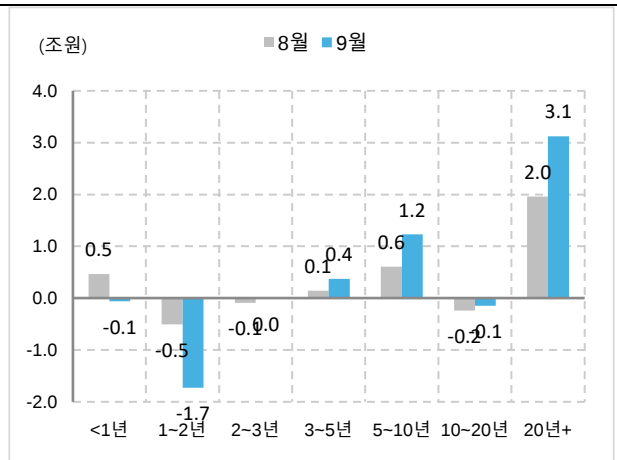
자료: 연합인포맥스,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2. 은행 만기별 국고채 순매수: 2.37조원에서 3.18조원으로 증가했고, 5~10년과 20년 초과가 매수를 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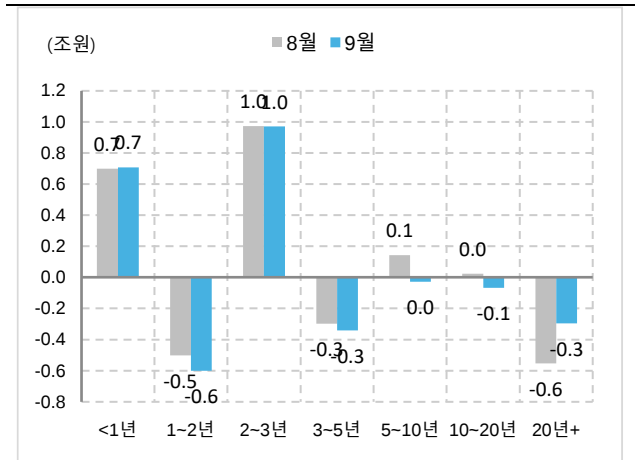
자료: 연합인포맥스,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3. 보험+기금 국고채 순매수: 2.34조원에서 2.79조원으로
늘었으며, 20년 초과 매수만 3.12조원으로 집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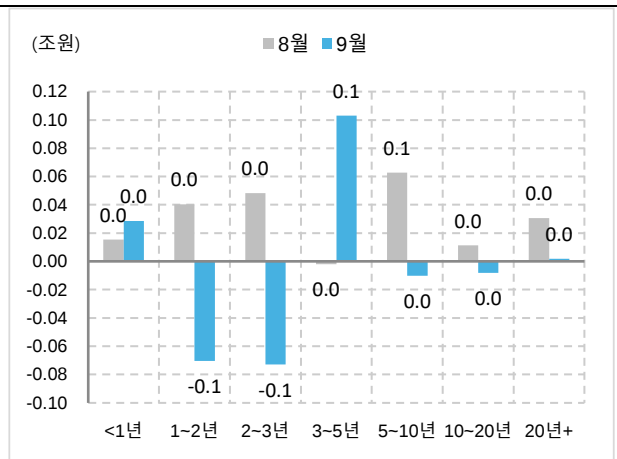
자료: 연합인포맥스,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4. 자산운용(공모) 만기별 국고채 순매수: 0.49조원에서
0.34조원으로 둔화되고 10년 이상에서는 순매도를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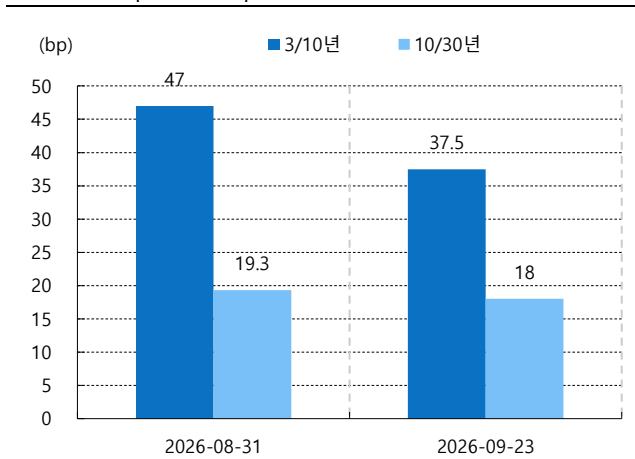
자료: 연합인포맥스,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5. 기타법인 국고채 순매수: 8월 +0.21조원에서 9월
-0.03조원으로 돌아섰지만 규모는 제한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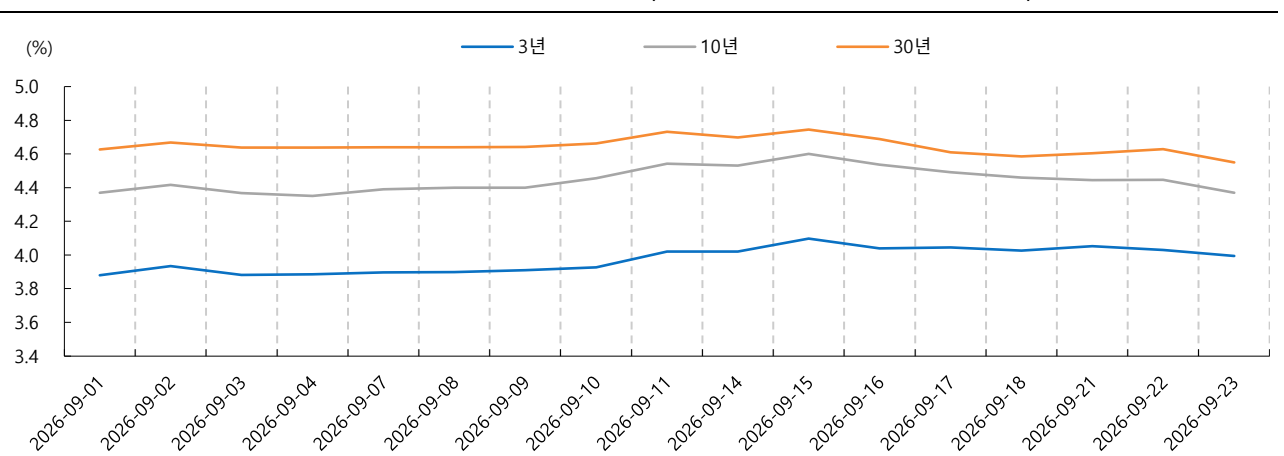
자료: 연합인포맥스,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6. 월간 커브 변화: 8월 말 대비 9월 23일 3/10년 스프레드는
47.0bp에서 37.5bp로 축소



자료: 연합인포맥스,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7. 9월 주요구간 국고채 금리 추이: 9월 1~23일 3년 금리는 11.6bp 상승한 반면 10년은 보합, 30년은 7.7bp 하락



자료: 연합인포맥스, iM증권 리서치본부

Compliance notice

- 당 보고서는 기관투자자 및 제 3자에게 E-mail등을 통하여 사전에 배포된 사실이 없습니다.
 - 당 보고서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김명실)
- 본 분석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따라서, 본 자료에 의한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해 어떠한 목적의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작성자 및 당사의 허가 없이 전재, 복사 또는 대여될 수 없습니다. 무단전재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